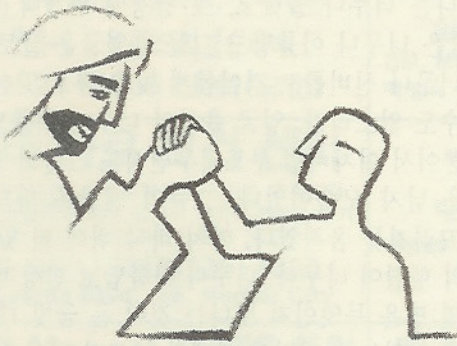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6주일 (성모성일)
제27권 24호 (다해) 2007.5.13

[묵상]



부드러운 손

눈물로 통회하니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니 미소로 답하시며

연약한 내게 와서 손을 잡아 주시며

가자, 어디든지 함께 가자 하시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화 요 일	백삼위 신앙학교 (4단계 7월2일까지)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박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인숙 마리아, 박노현 요한
특전미사	(생)한기 루스, 신동훈 마티아, 민영준 마르코
주 일 학생미사	(생)박미진 유스티나, 박효진 안젤라
주 일 낮 미사	(연)김일레 아네스, 이순자 테레사, 김상순 레지나 윤공 비오, 석선건 안젤로, 양갑순 마리아, 정운 요셉 김인영 베드로, 김형진, 김창배 파스칼,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데니스웨버 (생)유정복 베네딕다, 이규호, 김상근 바오로 가정 손석조 마리아,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이유진 대건안드레아, 천광락 야고보와 남숙 리디아 가정 권희철 클레멘스와 본경 율리아 가정, 정리디아, 오화석 장현숙 발바라,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5,1-2,22-29

화답송 ①창생이 하느님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전례성가 73 부활 제6주일 C해>
②하느님 우리를 어여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당신의 도가 세상에 알려지고
만백성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③
④정의로 못 백성을 다스리심을
이 세상 못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라 춤추며 기뻐하라.⑤
⑥하느님 당신을 높여 창생이 기리게 하소서.
만민이 당신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만방이 당신을 두리게 하소서.⑦

제 2독서 묵시록 21,10-14,22-23

복음환호송 ①알렐루야.
②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③

복 음 요한 14,23-29

영성체송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70	213
봉헌	409	255, 261
성체	378	304, 296
파견	166	164(2, 4절)

✠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5) ✠

갑자기 성당 좌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전혀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성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옆구리에서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다른 사람이 튀어나온 것 같았다. 그들은 빛나는 하얀 겹옷을 입고 있었고, 좌석에서 중앙 통로로 나와 엄숙하게 제대로 나아갔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잘들여라. 저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수호천사들이다. 신자들의 수호천사들이 주님의 제대 앞에 신자들의 희생 제물과 청원을 가져가는 순간이다.”

그 순간 나는 너무나 놀랐고,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들의 얼굴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롭게 빛을 뿜고 있어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으리라. 얼굴 윤곽이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빛을 내뿜어서 여자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그들의 몸매와 손과 전체 모습은 남자 모습이였다. 그들의 맨발은 바닥에 닿지도 않은 채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마치 바닥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천사들의 행렬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

그들 중 몇 명은 무엇인지 빛나는 것이 든 금빛 대접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흰색과 금색의 빛이 나왔다. 그것에 대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은 많은 청원을 위해 이 거룩한 미사를 바치는 사람들의 수호천사들이다. 이 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호천사들이다. 주님께 드릴 것과 희생으로 드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호천사들이다.”

이순간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바쳐라. 주님께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너의 꿈, 너의 낙심, 너의 기쁨, 너의 청을 드려라. 거룩한 미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소망과 간청을 희생 제물과 봉헌물로 풍성하게 드려야 한다.”

그 천사들 뒤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이들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빈손으로 거기 서 있었다. 거룩한 동정녀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은 여기 있기는 하나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이들의 수호천사들이다. 그들은 이 거룩한 미사의 모든 전례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들은 하느님의 제대 앞에 가져갈 아무런 희생 제물이 없다.”

그들 맨 뒤에 아주 슬픈 표정의 천사들이 나왔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제대 앞으로 나왔다. “이들은 여기에 있으나 여기에 없는 사람들의 수호천사들이다. 다시말하면 그들은 ‘거짓’ 화해 때문에 또는 미사 참례의 사회적 의무 때문에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 자신은 거룩한 미사에 참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수호천사들은 제대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기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슬퍼하며 나온다.

너희들의 수호천사를 그렇게 슬프게 하지 마라. 그냥 많은 것을 간청하면 된다. 죄인들의 회개, 세상의 평화를, 너희 가족과 너희 이웃과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청하여라. 너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청하고 요구하고 줄라라.

◆ 카탈리나 리바스 /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

유다인 지혜의 저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느님이 최초의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만드셨다고 적혀 있다. 로마 황제가 한 랍비의 집을 방문하여 ‘하느님은 도둑이다. 어째서 남자가 잠들어 있을 때 허락도 없이 뼈를 떼어 갔는가?’라고 말했다. 이 때 옆에 있던 랍비의 딸이 말참견을 하였다. ‘황제의 부하 중 한 사람을 좀 빌려 주십시오.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 조사 시켰으면 하는데요’ 라고 했다. 황제는 ‘그건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야?’고 물었다. 그 딸은 ‘실은 어젯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 금고를 훔쳐 갔는데 그 대신 도둑은 금그릇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사하여 연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황제는 ‘그것 참 부러운 일이로군. 그런 도둑이라면 내 집도 털어 갔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했다. 그러자 랍비의 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 일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일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갈비뼈 한 대를 훔쳐가셨지만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 놓으셨으니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화와 성령을 남겨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십자가상 죽음의 길로 떠나게 되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내려 주십니다. 평화는 전쟁이 멈춘 상태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예수님 바로 자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이웃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결국, 당신의 삶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평화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또한 나약하고 겁 많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협조자 곧,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갖 박해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제1독서(사도 15,28)에서 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초대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늘 주님이 남겨 주신 평화를 인사하고 나눕니다. 형식적인 평화의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가정과 이웃 안에서 용서의 마음과 진실이 담긴 ‘평화’를 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미아3동성당 주임

<6면에서 이어짐>

과달루페 성모의 발현이 있는 후 7년 만에 당시의 멕시코 인구,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8백만 명 이상이 가톨릭 신자로 개종했고 오늘날 멕시코는 가톨릭 국가로서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이다.

빌려 얻어 읽은 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순례를 떠나기 전 알게 되니, 성모님 발현의 의미에 동참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례의 여정이 행복하게 그려졌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순례에서의 매일매일의 미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만을 베푸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하였다.

죽을 사람이 아닌 “살아야 할 사람이 죽어가는 곳”이 성모님의 발현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살게 되는 곳”이 되었다는 강론 중의 말씀은 크게 마음에 남았다. 이제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많은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사랑과 평화로 인도하는 과달루페성당은 평화의 도읍이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에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이사 2,2)

◆ P.V. 1반 반장 홍정란 클라라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이진향 아네스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모은기 다두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은 세실리아	서용숙 에스텔	김정심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 서 1, 4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최성자 카타리나	최진수 에오세비오
제1독서자	우경석 요한	이민상 요한	최영신 프란치스코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변해경 율리아나
제물봉헌자			토 동 2, 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지난 주간 합계: 1,931단 ☞ 총 합계: 124,810단

- ◆ 백삼위 신앙학교 제4단계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7월2일까지), 성전
 - 본당신부님 주일 강론 및 신앙학교 Cassette Tape이 사무실에 준비되었습니다.
- ◆ 주일학교 초.중.고등부 세례 및 첫영성체 대상자 부모님 모임
 - 오늘 주일 11시 미사 후, 성전
- ◆ 자모회 모임
 - 오늘 주일 오후 1시, 성당
 - 특강: 인터넷과 청소년 문화
 - 강사: 김화경 스텔라
- ◆ 주일 학교 고등부 전진
 - 6월1일(금), 오후 6시까지 필히 도착해야됩니다.
 - St. Margaret Mary Church
 - Rehearsal: 5월31일(목), 오후 6시
- ◆ 주일 학교 백삼위 축구부 연습 및 게임(vs. 성마리아 성당)
 -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본당 운동장
 - 게임: 6월3일(주일) 오후 4시, 장소 차후 알림
 - 대상: 2학년~6학년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5월20일(주일), 운동장
 - ▶ 낮미사: 오전 10시30분(임시 변경된 시간입니다.)
 - ▶ 11:30 : 개회식
 - ▶ 12:00 : 지능게임
 - ▶ 12:30~1:30 : 점심 각 구역별
 - ▶ 1:30~5:00 : 굼뎡이 달리기, Hole in One, 박개기 줄다리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임
 - ▶ 5:00 ~6:00: 폐회식, 주변정리
 - ▶ 6:00: 뒤풀이-백삼위 가족 한마당 노래자랑
 - 청팀 : 토렌스 남, 하버/칼슨, P.V.
 - 백팀 : 토렌스 동, 서, 북
 - 복장 : 백삼위 모자, 본당 셔츠, 편의복
 - 푸짐한 노래자랑 및 추첨 상품(Raffle Ticket)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단합과 활성화를 위한 이자리에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위해 Donation하신 고급재 체칠리아, 송일권 울리오, 유영균 우르바노 유철희 바오로, 임종택 베르나르도, 정상봉 요한 정충로 안토니오, 현석주 아오스딩, 올림픽 골프 Win 골프에 감사드립니다.
- ◆ 주일 학교 Summer Camp 신청
 - Camp: 7월13일(금)~15(주일)
 - Woodspring Wind, Julian, CA
 - 캠프비용: \$102 (학생부담 \$70, 본당 보조 \$32 + Bus)
 - Food, Cabin 제공됩니다.
- ◆ 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5월13일: 토렌스 북 1반 (김밥 \$3)
 -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고천용	김교복	김기정	김선제	김선희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김교복	김기정	김선제	김선희		
	김양금	김옥보	김원태	김중환	김철수	김택수		김양금	김옥보	김중환	김철수	김택수	노천수		
	노천수	노혜숙	모은기	문은주	민봉식	민상기		모은기	문은주	민봉식	민상기	민소예	박광자		
	민소예	박광자	박인식	박정자	박정희	박준구		박정자	박정희	박준구	박희자	배기엽	서홍삼		
	박진수	박희자	방정복	배기엽	서홍삼	송기철		안재만	엄혜은	오진자	오호순	유우상	유정복		
	안재만	엄혜은	오강림	오세정	오진	오진자		육재민	윤재림	이경용	이근모	이영희	이인석		
	오호순	유우상	유정복	유호연	육재민	윤재림		이호미	장수창	장영우	정기은	정동호	최미열		
	이경용	이근모	이연행	이영희	이인석	이호미		최애경	최의수	한혜숙	영희가보라				
	임성택	임순	임연조	장수창	장영우	정기은									
	정동호	최미열	최미예	최애경	최의수	한혜숙									
	영희가보라														
	합계 : \$6,950														
	미사헌금	\$ 2,608.25		2차헌금	\$883				감사헌금	이재용	배난균				

공지사항

환영합니다.

◆ 지난 주에 저희 본당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 황철수 베드로/영순 루시아 (하버/칼슨 1반)
자녀: 신영 헬레나, 윤재 베드로, 은진 에밀리아

혼인공시

◆ 혼배 예정자: 서완덕(수요교리반) / 그레이스 Isabella

- 일시: 7월21일(토), 오전 11시30분
- 신랑측 부모: 민경근 베드로 /민원희 안나
- 신부측 부모: 서성현/이학숙

※위의 사람이 혼인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남가주 소식

◆ The Rosary Bowl- 다민족 묵주기도 대회

The Family that Prays Together, Stays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 화목
A World at Prayer is a World at Peace: 기도하는 곳에 평화

- 5월19일(토) 오후5시~9시
오후 6시: 찬양, 묵주기도 체험나눔
7시30분: 입장식, 성체 거양 행렬, 묵주기도
마호니 추기경 강론, 성체강복
- Rose Bowl, Rose Bowl Dr., Pasadena, CA 91103
- 목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기도생활 강화→
가정화목과 공동체 일치 → 세계평화 촉진

◆ 제20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5월31일(목)~6월3일(주일) 접수시작 목요일 오후3시
- Mater Dolorosa Passionist Retreat Center
700 N. Sunnyside Ave., Sierra Madre, CA 91204
- 강사: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
- 대상: 성령 체험을 원하는 모든 교우
- 참가비: \$250
- 문의: 각성당 기도회장 or 성령봉사회 (818)480-1615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사람을 구합니다.

◆ Torrance 보바로카 ◆

- Part Time 일하실 분, 원하는 시간에 일 하실 수 있음
- 연락처: (310)817-1592

이번 주 단체 모임

각단체 모임 오후 1시, 각 방

다음 주 단체 모임

본당 체육대회 운동장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정기은 비오 618-9775 5/12(토) 오후 7시
	3	정정숙 레아 791-5696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4	권본경 율리아 834-2831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5/11(금)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장주란 마리아 486-1982 5/11(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부장) 938-3255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부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체육대회 후 천교자리 5/20(주일), 오후 5시, 천교장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최진수 예수세비오 377-0345 5/11(금) 오후 7시30분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김병학 대견안드레아 544-4807 5/18(금) 오후 7시30분
	3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김용명 프란치스코 544-9532 5/11(금) 오후 7시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 과달루페 성지순례 후기 ❖

† 천상에서 보내 주신 보물(대 과달루페)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냐?"

성모님의 성화가 기적에 의해서 나타났던 천(틸마)의 원본을 보기 위해 멕시코로의 순례를 떠났을까? 지난 3월 백삼위 한인성당 "과달루페" 성지순례단은 주님의 현존을 깊이 느끼는 희망을 안고, 성모님 신비의 발현 장소를 향해 가족과 공동체의 도움으로 성지순례길에 올랐다.

백삼위 신앙학교 강의를 통해, 요한 디에고가 천상의 모후께서 일러주신 대로 성모님을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장소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장미를 주마라가 주교에게 보였을 때 주교는 망토(틸마)에 담아 온 장미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틸마에 성모님의 영광스런 모습이 새겨져 있었기에 주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듣고 처음으로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과 요한 디에고의 신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순례를 떠나기 이틀 전에 "과달루페의 성모" 책자를 같은 반원 채에스티 자매로 부터 우연히 빌려 얻어 읽는 은총이 함께 했다. 자매는 20년을 소중히 간직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빌려 주며 나의 목마름을 채워 주었다. 순례지를 가기 전 부터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450년이 더 지난 이 기적에 대한 원문(Nican Mopohua)은 과달루페의 성모께서 발현 하셨던 그 시대 생존한 인물이며 아즈텍 인디언이었던, 안토니오 발레리아노가 당시의 인디언 말이었던 나후아틀어로 1548~1554년 사이에 원문을 기술했고, 조금의 수정을 가함이 없이 말 그대로 스페인어로 옮겨 놓은 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겼다 한다.

멕시코 교회에 하느님 사랑의 전달자가 되었던, 평신도 사도의 모범을 보인 요한 디에고는 세례를 받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배하려 했으며 아침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별이 지기 전에 테페약 산을 넘어가곤 했다고 한다.

성모님은 57세의 아즈텍 인디언 요한 디에고에게 네 차례의 발현과, 디에고의 숙부 요한 베르나르디노에게 발현하시어 그의 병을 완치 시켜 주셨다 한다. 요한 디에고는 테페약 언덕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구름 속에 홀연히 서있는 아름다운 귀부인을 만나는데, 그분은 자신이 은총을 받으신 동정녀 마리아임을 밝히시며, 당신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서 그 장소에 한 성당을 세우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교에게 전하도록 분부 받는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주교관으로 가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의 말을 신임하지 않는 주교의 태도에 그는 자신이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깊이 느끼게 된다. 그러한 그에게 성모님은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을 시작하신다.

"잘 알아듣도록 하여라. 너는 나에게 많은 사자들과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그들을 시켜 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나의 청을 받아들여 너의 중재와 도움으로 나의 뜻이 이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요한 디에고는 다시 힘과 용기가 솟아났으며 보다 큰 확신을 얻었고, 앞으로 자기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 그렇지만 주교관하인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은 몹시 그를

두렵게 했고, 예상했던 대로 하인들을 만나 들여보내 달라는 청을 하기가 먼저보다 훨씬 어려웠다. 모든 수모를 잘 참아내고 있었지만 막상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주교 앞에 서니 눈물만 나올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절도 없는 자신의 태도가 성모님의 메시지(말씀)를 손상시켰음을 깨닫고 공손한 태도로 주교의 말에 서슴없이 대답했다.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말하는 것을 본 주교는 엄격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로 하늘의 여왕이신 성 마리아의 표적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했다.

성모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고 있었으며 완전한 순종을 표하려 했던 요한 디에고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세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친척인 숙부의 병이 위독하여 수도회의 원장 신부가 숙부를 살려 내리라는 기대를 갖고, 성모님과의 약속으로 시간을 지체 할 수 없어 그는 오직 병을 고쳐줄 신부들이 있는 곳만을 생각하며 수도회로 서둘러 갔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 산위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었고 산의 중턱에서 성모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성모님은 요한 디에고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냐? 조금도 근심하지 말아라. 너의 숙부의 병도, 그 밖에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진정한 희망이며 구원이 아니란 말이나? 나는 내가 진정으로 네 숙부의 병이 이미 완쾌되었음을 믿기 바란다." 성모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요한 디에고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성모님께서 분부하신대로 산위로 올라가 형형색색의 장미꽃송이를 자신의 틸마에 담아 주교에게 가서 펼쳐 보이며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다. 주마라가 주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성모께서 원하신 일과 하명하신 것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였다. 주교는 천상 모후의 거룩한 성화를 그의 기도소에서 성당으로 옮겨 놓았다.

요한 디에고는 남은 여생(17년)을 성모님께 바치기 위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마태 6,31-32)는 성경말씀을 따라 겸손한 태도로 생활하며 소성당 옆의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기적의 성모 성화가 있는 곳으로 매일 같이 물려드는 인디언들에게 성모님의 뜻을 설 사이 없이 전하였다. 주마라가 주교 또한 자주 그 소성당을 방문하기 위해 테페약 산길을 가면서 여러 차례 성모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씀은 "하느님은 너희 모두가 요한 디에고와 같은 자녀가 되기 바라신다."라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주교는 요한 디에고가 자기를 찾아와서 보여 주던 열성 어린 태도를 상기하곤 했다고 원문은 기술했고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1492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 1521년 스페인의 코르테스군대는 아즈텍제국(지금의 멕시코)을 점령했다. 멕시코 인들이 정복자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설움을 당하던 때에, 아메리카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멕시코에 성모님이 발현하신 이유는 그 전체의 신대륙을 하느님의 땅으로 선언하시기 위해서였다. 대륙의 모든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주보 3면에 계속